

네팔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

2016. 7.

I. 일반개황	1
II. 경제동향	2
III. 정치·사회동향	6
IV. 국제신인도	7
V. 종합 의견	9

I. 일반개황

면적	147천 Km ²	G D P	214억 달러 (2015년)
인구	2,843만 명 (2015년)	1 인 당 GDP	751달러 (2015년)
정치체제	연방공화제	통화단위	Nepalese Rupee
대외정책	비동맹 중립	환율 (달러당)	102.6 (2015년 평균)

- 네팔은 인도 북부 지역과 중국 서남부 지역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내륙국가로 인구의 80% 이상이 힌두교를 종교로 삼고 있음.
- 1996년 이후 10년간 지속된 공산주의 세력인 마오이스트와의 오랜 내전, 농업 위주의 산업구조, 취약한 인프라 등으로 경제발전 수준이 낮음.
- 네팔은 국토의 대부분이 산악지대로 이루어져 있어 수력 자원이 풍부하며, 특히 북부 산악지대의 에베레스트 등에 외국인 관광객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관광산업 성장 잠재성이 높음.
- 정치체제는 2008년 5월 국민투표에 의해 왕정에서 공화제로 변경되었으나, 정당 간 의견 불일치로 정책 입안이 지연되는 등 정국 불안이 지속되고 있음.

II. 경제동향

1. 국내경제

<표 1> 주요 국내경제 지표

단위 : %

구 분	2012	2013	2014	2015	2016 ^f
경제성장률	4.8	4.1	5.4	3.4	0.5
소비자물가상승률	8.3	9.8	9.0	7.2	12.9
재정수지 / GDP	-0.6	2.1	1.5	1.0	-1.4

자료: IMF

※ 회계 연도: 당해 연도 7.16~차기 연도 7.15

□ 자연재해로 인한 농산물 작황부진 등으로 성장률 크게 둔화 전망

- 2012년 이후 4% 내외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으나, 만성적인 전력 및 에너지 공급 부족, 정치 불안정 지속, 인프라 및 제조업 기반시설 미비 등으로 세계 최빈국 중 하나에 머무르고 있음.
- 2015년에는 대지진 발생에 따른 농산물 작황 부진으로 경제성장률이 전년 대비 하락한 3.4%를 기록함. 더불어 2016년에도 전년 자연재해로 인한 인프라 시설 등의 복구가 지연되어 성장률이 크게 급감한 0.5%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.

□ 정부 예산정책 운용 미비에 따라 재정수지 적자 전환 예상

- 정부가 세수 확대를 위해 세무조사 확대, 납세절차 간편화 등을 추진하여 대내적으로 세입이 증가하고 있으며, 국제기관의 원조지원액도 증가세에 있어 2013년 이후 재정수지 흑자를 보이고 있음.
- 2015년에는 정부 투자지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다자금융기관의 원조지원액이 사상 최대치인 10.7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GDP 대비 재정수지 비율이 1.0%를 기록함. 반면 2016년에는 정부 예산정책 운용 미비로 GDP 대비 재정 적자 비율이 1.4%를 기록할 것으로 보임.

□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로 높은 소비자물가상승률 지속 예상

- 소비자물가상승률은 농산물, 식료품 가격 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으며 2012년 이후 8~9% 이상의 높은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지속됨.
- 2015년에는 저유가 기조에 따라 소비자물가상승률이 7.2%로 다소 하락하였으나, 2016년에는 지진 등 자연재해 여파에 따른 농작물 생산 감소, 인프라 복구 지연, 수입물가 상승 등으로 12.9%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.
 - 네팔 루피화는 인도 루피화에 1.6:1의 비율로 페그(peg)되어 있으며, 최대 교역대상국인 인도의 고물가와 네팔 루피화 가치 하락으로 물가가 상승할 것으로 보임.

2. 경제구조 및 정책

가. 구조적 취약성

□ 농업 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로 제조업 기반 미비

- 2014년 기준 농업이 GDP의 약 30%, 고용의 약 66%를 차지하는 등 농업 의존도가 높으나, 농경지 부족, 관개시설 미비 등으로 농업생산성이 낮음.
- 제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3.8%로 매우 낮은 수준이며 제조업의 대부분이 설탕, 맥주, 의류 등 소비재산업 위주임. 특히 열악한 사회간접 자본과 더불어 자연재해에 취약한 지리적 특성, 협소한 내수시장 등이 제조업 발전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.

□ 원조자금 및 해외송금에 대한 높은 의존도

- 매년 총예산의 약 20%, 개발 예산의 약 70%를 원조자금에 의존하고 있음. 부정부패 등으로 인해 원조의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자 WB, ADB 등 국제기구는 원조자금의 집행 투명성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음.
- 해외근로자로부터의 송금 유입액이 수출액의 63.7%를 기록하는 등 비제조업 수출 분야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. 송금액의 대부분이 생활자금으로 소비되어 투자재원이 부족하고 해외근로자가 근무하는 국가의 경기침체에 국내경제가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음.

□ 열악한 물적·인적 인프라 환경으로 경제성장 제약

- 전력, 교통, 항만 등 전반적으로 인프라 환경이 취약하고 세계경제포럼(WEF)의 2015~16년 글로벌경쟁력지수에 따르면 네팔의 인프라 부문 경쟁력은 140개 평가대상국 중 127위로 하위권에 머물러 있음.

나. 성장잠재력

□ 거대시장 접근성 및 풍부한 관광·수력자원 보유

- 중국 및 인도와 국경을 접하여 시장 접근성이 높고 이들 국가를 연결하는 물류산업 분야 등에서 성장 잠재력을 보유함. 더불어 히말라야, 룸비니(부처님 탄생지) 등 풍부한 자연자원과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음

※ '14년 기준 외국인 관광객이 약 80만 명에 달하였고 특히 인도, 중국, 미국 관광객이 급증

- 세계 2위 규모인 약 43,000MW의 상업적으로 개발 가능한 수력용량을 보유하고 있으며, 2015년 기준 개발률이 1% 미만에 불과하여 향후 수력 자원 개발 여력이 높음.

※ 다만, '15. 4~5월 대지진으로 인해 '17년 말 완공 예정이었던 Upper Tamakoshi 수력발전 프로젝트 등 대형 발전 프로젝트 등이 지연

다. 정책성과

□ 적극적인 외국인투자 유치 노력 지속

- 2011년 투자위원회(Investment Board) 설립, 2012년 '네팔 투자의 해'로 지정에 이어 2015년 외국인 투자유치법을 통과시켜 외자 유치를 위해 적극적인 민영화·자유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.

- 수력발전, 교통인프라, 농업, 관광업, 광업 등을 우선 개발 산업으로 지정하였으며, 특별경제구역 개발, 이중과세방지 조약 체결 등 외자유치를 위한 내용을 포함함.

- IFC의 기업경영여건(Doing Business) 평가에 따르면 네팔의 기업경영여건 순위는 2009년 123위/183개국에서 2016년 99위/185개국으로 개선됨.

3. 대외거래

<표 2> 주요 대외거래 지표

단위 : 백만 달러, %

구 분	2012	2013	2014	2015	2016 ^f
경 상 수 지	91	64	91	107	136
경 상 수 지 / GDP	4.8	3.3	4.6	5.0	6.2
상 품 수 지	-4,946	-5,545	-6,426	-6,499	-6,989
수 출	1,004	998	1,001	995	1,004
수 입	5,950	6,543	7,427	7,494	7,993
외 환 보 유 액	4,307	4,626	5,876	6,164	6,164
총 외 채 잔 액 ^{주)}	4,279	3,987	4,049	3,891	4,892
총외채잔액/GDP	22.7	20.7	20.5	18.2	22.4
D. S. R.	6.0	2.6	2.3	1.6	1.9

주: IMF, EIU

□ 상품수지 적자를 해외근로자 송금 유입 및 국제기구 원조로 보전

- 제조업 기반이 취약하여 소비재의 수입의존도가 높으며 직물 및 농산물 등 저부가가치 제품을 주로 수출하여 만성적인 상품수지 적자를 기록함. 그러나 관광 수입 및 해외근로자의 송금 유입으로 상품수지 적자를 보전하여 경상수지는 소폭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음.
- 2015년에는 지진으로 인한 수출 감소로 상품수지 적자폭이 다소 확대되었으나, 해외근로자의 송금 유입 증가로 적자액을 보전하여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이 5.0%를 기록함. 2016년에는 관광객 감소로 인한 서비스수지 적자에도 불구하고 원조 자금 지원으로 동 비율이 6.2%를 기록할 것으로 보임.

□ 해외근로자 송금 및 원조자금 유입 등으로 외환보유액 상승세 지속

- 외환보유액은 지속적인 해외근로자 송금과 더불어 자연재해 피해복구를 위한 국제기구의 원조자금 유입 등으로 2015년 약 62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, 이는 월평균수입액의 8.2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안정적인 수준임.

□ 외채잔액비중과 D.S.R.이 양호한 수준을 기록

- 2015년 GDP 대비 총외채잔액은 18.2%, D.S.R.은 1.6%을 기록하였으며, 2016년에도 유사한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.

Ⅲ. 정치·사회동향

1. 정치동향

□ 정당 간 정치적 갈등으로 정책 입안 지연 등 정국 불안 지속

- 급진네팔공산당(UCPN-Maoist), 온건네팔공산당(CPN-UML) 등 여당 연합 내 정치적 충돌 등으로 인하여 외자유치를 위한 개혁 법안과 지진 피해 복구 대책 마련 등 정책 시행이 지연되고 있음.
- UCPN은 2015년 10월 총선에서 당선된 올리 총리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면서 야당인 네팔의회당(Nepali Congress)과의 새로운 내각 구성을 요구함. 이에 총리는 UCPN의 당 대표에 압력을 가하고 있으며, CPN은 소수민족 요구 수용, 인프라 재건 등 적극적 민생 정책 추진으로 대응하고 있음.

2. 사회동향

□ 대지진 피해 복구 지연에 따른 사회불만 고조

- 세계 각국이 지원한 40억 달러의 구호자금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재정·행정 관리 부족, 관료주의 만연 등으로 지진 피해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회 불만이 고조되고 있음.
- 대지진 참사 이후 1년이 지나도록 식수 부족, 정전 등 기본적인 생활 인프라 복구조치 이루어지지 않음. 온건네팔공산당 등은 강제총파업인 Bandh를 주도하여 교통마비, 학교 휴업, 시장 영업 중단 등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고 있음.

□ 소수민족의 반정부 시위 등 사회소요 사태 발생

- 소수민족인 마데시족은 2015년 통과된 연방제 헌법 개정을 요구하면서 2016년 2월까지 5개월 간 국경봉쇄시위를 주도하여 생필품 대란을 일으킴. 이어 5월에도 수도인 카트만두에서 소수민족에 불리한 헌법을 반대하는 반정부 시위를 한 바 있음.

3. 국제관계

□ 인도, 중국 등과의 정치·경제·사회적 협력 강화 지속

- 전통적으로 정치·경제부문에서 인도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왔으며, 최근 인도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중국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음.
 - 인도는 네팔 반군 마오이스트 무장세력을 견제하고 비(非) 마오이스트 하에서의 정치적 안정을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는 한편, 마데시 족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여 네팔과의 외교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음.
 - 중국은 지진피해 복구를 위한 원조(760백만 달러) 뿐만 아니라 16억 달러 규모의 대형 수력발전 사업 지원, 티벳-네팔 철도 건설 추진 등 네팔과의 사회·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있음.

IV. 국제신인도

1. 외채상환태도

□ ECA 연체 경험이 없는 등 양호한 외채상환태도

- 2016년 6월 말 기준 네팔에 대한 OECD 회원국의 ECA 승인금액은 총 55.9백만 달러(단기 52.7백만 달러, 중장기 3.2백만 달러)이며 리스케줄링 및 연체 경험이 없는 등 양호한 외채상환태도를 보이고 있음.
- 2015년 GDP 대비 총 외채잔액 비중 18.2%, D.S.R. 1.6% 기록 등 양호한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음. 또한, 총외채의 대부분이 장기 공적외채이며, 이중 MDB채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외채관리능력이 양호함.

2. 국제시장평가

□ 주요 신용평가기관 평가현황

- OECD는 정치적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네팔의 국가위험도등급을 최근 3년간 6등급으로 유지하고 있으며, S&P, Moody's, Fitch 등 주요 국제 신용평가 기관은 네팔 등급을 평가하지 않고 있음.

* OECD 평가등급: 7('13.6) → 6('14.6) → 6('15.6.3) → 6('16.6)

3. 우리나라와의 관계

□ 국교수립: 1974년 5월 15일 (북한과 동일)

□ 주요협정: 영사협정(1969), 무역협정(1971), 이중과세방지협정(2001), 항공협정(2004), 문화협정(2005)

□ 해외직접투자 현황: 2016년 3월말 기준 24건, 41.3백만 달러(누적)

□ 교역규모

<표 3> 한-네팔 교역규모

단위: 천 달러

구 분	2014	2015	2016.6	주요품목
수 출	20,033	25,623	8,890	기타섬유제품, 전자응용기기, 건설광산기계
수 입	2,883	1,912	636	기타섬유제품, 기호식품, 의류
합 계	22,916	27,535	9,526	-

자료: 한국무역협회

V. 종합의견

- 네팔은 세계 최빈국 중 하나로 2015년 경제성장률은 지진, 홍수에 따른 농산물 작황 부진으로 전년 대비 하락한 3.4%를 기록함. 더불어 2016년에도 전년 자연재해에 따른 인프라 시설 등의 복구가 지연되어 성장률이 크게 급감한 0.5%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.
- 2015년에는 다자금융기관의 원조지원액이 사상 최대치인 10.7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GDP 대비 재정흑자 비율이 1.0%를 기록함. 2016년에는 정부 예산 정책 운용 미비로 재정수지가 적자 전환되어 -1.4%를 기록할 것으로 보임.
- 높은 농업의존도, 미비한 제조업 기반, 열악한 인프라 환경 등의 구조적 취약성을 보이고 있으며 원조자금 및 해외근로자 송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음.
- 2008년 공화제 출범 이후 총선과 대선 실시로 새로운 정부의 기틀이 수립 되었으나, 정당 간 의견 불일치에 따라 정책 입안이 지연되고 있음. 또한, 지진 피해 복구 지연과 소수민족 차별에 따른 반정부 시위 등이 발생하고 있음.
- 총외채의 대부분이 장기 공적외채이며 안정적인 외환보유액, 낮은 D.S.R, GDP 대비 총외채잔액 등을 고려할 때 외채상환능력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조사역 장 은 진 (☎02-6255-5716)

E-mail: eunjin@koreaexim.go.kr